후원회소식

통권 168호 | 발행일 2005. 10. 11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추모, 통일 애국열사 정순택 선생

▲2005년 9월30일 정순택선생님께서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아오시다가 끝내 통일 조국을 보시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은 통일애국열사 정순택선생 민족통일장으로 장례를 모셨으며, 유해는 북녘 아드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목·차·

추도사 권오헌 • 2 / 정순택선생 민족통일장 • 5 / 감옥에서 온 편지 김성환 • 9 / 시사만평 • 11 / 하반기 전농투쟁 전국농민회총연맹 • 12 / 고 김병권 선생님을 추모하며 김혜순 • 14 / 이런회원 · 김희선 회원을 찾아서 오영순 • 16 / 회원마당 · 산행기 이봉주 • 17 / 알립니다 • 18 /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1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3 / 재정보고 • 29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통일 조국의 평생염원 남은 사람에게 맡기시고 이젠 편안히 잠드소서

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대표

선생님! 정순택 선생님.

신념의 고향 가는 길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끝내 이렇게 가셔야했습니까.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던 통일조국의 그 영광의 날을 보시지 않고 어찌 눈을 감으셨습니까. 침략자 외세를 미워하고 반드시 내쫓아야 한다며 반미 만리장정을 하시더니 그승리의 날을 보시지 않은 채 이렇게 가셔야만 했습니까. 너무도 슬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선생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이었지요.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대표들은 통일부와 적십자사 등을 방문 면담하면서 '조건 없는 송환'이 정부 당국의 방침임을 확인하고, 선생님께 그 소식을 알려드리려 병실을 찾았었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오랜만에 눈을 뜨시고 반기시며 손을 잡아주셨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치 저희들의 반가운 소식을 미리 알기라도 하듯이 뜻밖에도 좋은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좋아지셨던 모습과 "동지들 두고 먼저 갑니다."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외세와 분단에 맞서 독재와 폭압에 맞서 32년 그 모진 세월 이겨내신 투혼으로 반드시 병마를 이겨내시고 신념의 고향 사무치게 그리운 가족 만나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희망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다니,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겨우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반미 시위 전국순례를 하시는 등 언제나 건강하셨습니다. 높은 덕성과 인품, 해박한 지식과 합리적 사고 방식은 곧바로 일상생활에도 적용되고 있었지요. 80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청순하고 창의적인 열혈 청년 같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의 학문탐구에 대한 열정, 고결하신 성품, 정의감은 선생님의 전 생애를 규정하게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21년 충북 진천에서 송강 정철의 13대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진보적 지식인이고 투철한 통일투쟁 전사이셨지만

명문의 집안이셨음을 숨기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서는 부친으로부터 한학을 수학하셨고 1937년 당시 충북지방의 명문이었던 청주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셨으며 학교생활 중에 일본어 강요에 항의, 백지동맹을 주도하는 등 이미 항일정신이 몸에 배게 되셨습니다.

1942년엔 지금의 서울 상대인 경성상업전문학교에 입학하셨고, 졸업을 앞두고 일제의 강제학병에 끌려 가는 수모와 분노를 갖게 했습니다. 1945. 8. 15 조국 광복과 함께 귀국하시어 서울상업전문학교를 수석 졸업하셨고 신한공사, 재무부에 입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주금학초등학교 교사이셨던 최복섭님과 결혼하셨고 서울대 상과대학 2학년에 편입, 향학열을 불태우시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 선생님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이란 민족적 과제를 가로막고 분단의 원흉이 되고 있는 미국, 특히 미 점령정책에 항거하게 되었고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미군정의 낙하산 인사에 불만, 상공

부 감사관리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한편, 자주통일을 위한 지하활동을 하셨으며 1949년 5월 가족 모두와 함께 북녘 조국으로 가셨습니다. 북녘에선 상업성 염업관리처, 재정경제처 등에서 고위직으로 일하셨고 6.25전쟁 시기엔 서울시 인민위원회에서 특수수매사업을 관장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뒤 상업성 외국인 접대관리처 부처장, 내각경제계산 자격 심사위원회 책임심사원, 내각 기숙자격 심사위원회 책임심사원 등 중책을 맡아하시다가 1958.7월 분단된 조국을 우리민족의 힘으로 하나되게 하려는 일념으로 남으로 내려오셨으나 바로 체포되어 195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년의 모진 옥고를 겪으시게 되었습니다. 사상전향공작의 잔혹한 고문도 이어졌습니다. 곡괭이자루, 가죽 혁대로 때리고 밧줄로 손발을 동그랗게 묶어놓고 몽둥이로 구타하고 물고문하는, 선생님 말씀대로 '인간 이하의 매질과 고독한 독방과 모욕적인 대우로' 선생님은 환각, 환청 등 병마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강제전향 당하고 1989.12.23일 31년 5개월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32년의 감옥생활을 지옥길이라 하셨습니다. 외세 간섭없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기위해 학문할 때의 동기동창이었고 일제의 강제 학병에 함께 끌려갔던 남쪽의 옛 지우를 만나려 한 것이 왜 간첩이 되느냐고 항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출소하시고도 돌아가실 때까지 보안관찰법에 묶여 감시통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찰자의 꿈'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옥을 나오기는 했지만 지옥에서와 같이 아무것도 없다. 생물학적 삶을 이어갈 능력도 처자도 집도 돈도 없다. 일자리를 줄 사람도 그리고 보안관찰처분된 사람으로 자유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조국에 대한 하강이 있다. 외세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다. 통일을 갈망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고 거짓말하는 통치자를 노래기 같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우정을 꽃보다도 더 곱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재물에 탐욕스런 사람을 똥보다 더 더럽게 보는 마음이 있다. 부정과 비리를 보면 폭발하는 분노가 있고 위선자를 송충이처럼 징그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선생님의 진면목이기도 했지요.

선생님. 2000년 9.2일 그 날은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녘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감격적인 날이었었지요.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정순덕 선생님과 함께 제외되셨습니다. 저들이 강제전향시켜놓고 '전향'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1999.4.24일 등 두 번에 걸쳐 한겨레 신문에 전향취소광고를 내셨었지요. 선생님께서 그 때 실망하시던 모습은 참으로 뵙기 민망하고 죄송스럽기만 했습니다.

9. 21차 송환이 이루어지고 선생님께서는 낙성대 '만남의 집'에 오시게 되었었지요. 음성 생질님댁에 계실 때나 성수동, 연희동에 계실 때만해도 필담을 할 정도로 귀가 어둡지 않으셨지만 '만남의 집'에 오셨을 땐 매우 심한 상태였었지요. 이 또한 오랜 옥고의 후유증이었고 통일투쟁 실천과정의 상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귀가 어두워 동지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자주 함께 하지 못하는 대신 또 다른 민족적 과제에 헌신하셨습니다. 바로 조국통일과 반미반전을 위한 국토대장정이었습니다. '미군은 물러가라', '반미는 민족양심 ', '미군가라', '소파 고쳐라', '전쟁반

대', '평화협정체결', '파병반대', '파병은 침략', '국가보안법 철폐'. 이러한 구호들은 선생님께서 반미시위 등 전국토순례를 하시면서 어깨띠에 써 넣은 글들

이었습니다. 2001년 7. 27일 동해안 고성에서 서해안 강화에 이르는 '통일염원 국토횡단 대행진'을 시작으로 2001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차에 걸쳐 50,445km 기차 시위를 하셨고 2004년 말까지는 선박으로 10,533km를 시위순례하셨습니다. 울릉도, 흑산도, 제주도, 백령도, 남해도, 거문도, 암태도 등 그 섬마다의 역사성을 강조하시면서 해상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까지 또다시 11,000km를 시위 순례하시는 투혼과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정순택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셨습니다. 어느 젊은이 못지 않은 투혼과 열정으로 시대의 과제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탈장수술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난 9월 5일 간암이란 청천병력같은 병원측의 단층촬영 판독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간 뿐이아니라 췌장에서 시작되어 횡경막으로 간으로 온통 암세포가 덮여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껜 차마 바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신념의 고향가는 길, 가족 상봉의 날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은 없다. 다만 신병정리가 필요하다. 반미시위를 원래 목표대로 못하고 떠나게 되어 아쉽다. 원래 목표는 6.15까지 70,000km, 8.15까지 80,000km, 9.9까지 90,000km, 10.10까지 100,000km하려했다. 도중에 그만두게 되어 아쉽다.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가는게 애석하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갔다는 자긍심을 갖는다. 좀 더 통일을 촉진시키지 못해 부끄럽다.

우리 민족과 내 아들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 민족의 최후의 적은 미국이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항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존립할 수

없다. 신심을 다하여 저항해야한다. 다행히 6자 회담이 합의되어 경하할 일이다. 우리민족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신명을 다하여 미국에 맞서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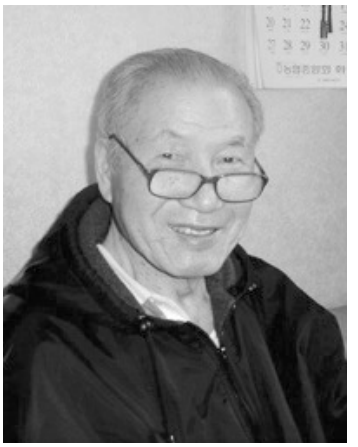
숭미, 공미 하면 주체의식을 잡아먹는 병균이 될 것이다. 미국의 세계화 정책은 미국놈들이 아메리카 버지니아주에 상륙하면서부터 이제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강도적인 것에 결코 굴복해선 안된다 대항하고 이겨야한다.'

선생님.

민족적 양심으로 '일그러진 민족사'를 살았던 지식인들에 있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이 있었다면 선생님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제 강도에 맞서 민족해방전선에 서는 일이었고 외세와 분단에 맞서 자주와 통일투쟁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겨레가 노예가 된 상태에서 계급계층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가 갈릴 수 없었던 이유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80평생을 선생님의 정의와 양심에 따라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그 고된 일들은 남은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비록 몸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선생님의 고귀하신 조국사랑, 인간사랑 정신은 모든 이들의 가슴 마다에 남아 선생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히 잠드소서.

통일애국열사 정순택선생께서 걸어오신 발자취



1921. 5. 8 충북진청에서 송강정철의 13대 손으로 태어나심, 부친으로부터 한학 수학

1937 청주상업고등학교 입학 – 일본어 강요에 항의 백지동맹 주도

1942 경성상업전문학교(현 서울대 상대) 입학

1944. 1 경성상업전문학교 졸업, 일제의 강제 학병에 끌려감

1945. 8 조국광복과 함께 징병에 끌려갔던 조선인 300명 인솔하여 귀국함

1945. 11 서울상업전문학교 재입학

1946. 6 서울상업전문학교 수석졸업, 신한공사 재무부 기장계장으로 입사

1946. 7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2학년에 편입

1946 최복섭민학교 교사)남조선 노동당에 입당

1947 미군정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에 불만 상공부 감사관리 감사관으로 옮김 이때 미군물자 판매대금 상당부분을 통일운동 자금으로 쓰심

1949. 9 북녘 조국으로 가심 / 강동정치학원 수학

1950. 1 상업성 염업관리처 경리부장

1950. 6 서울시 인민위원회 특수 수매사업소 관리

1950. 9. 26 인민군과 함께 북으로 후퇴

1950. 1 상업성 외국인 접대 관리소 소장

1951. 12 상업성 외국인 접대 관리처 부처장

1952. 6 내각 경제계산 심사위원회 책임심사원

1955. 5 내각 기술자격 심사위원회 책임심사원

1958. 7 자주통일에 헌신할 결의로 남으로 내려오심 – 바로 체포

1959. 8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선고

1980. 2 수형 중 반공법으로 10년 선고 (추가)

1989. 12. 23 가석방 출소 –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보안관찰법 적용받음

1999. 4. 24 두번에 걸쳐 한겨레신문에 전향취소 광고 내심

2000. 9 21차 비전향장기수 송환에서 제외 됨

2001. 7 동해안 고성에서 서해안 강화까지 국토횡단 대행진

2001. 11~12 반미기차시위 7,838Km

2002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오심

2002. 2~4 반미 · 미군철수기차시위 19,733Km

2002. 11~12 소파개정 미국반대 기차시위 3,658Km

2003. 3~4 전쟁반대 평화협정체결촉구 기차시위 4,23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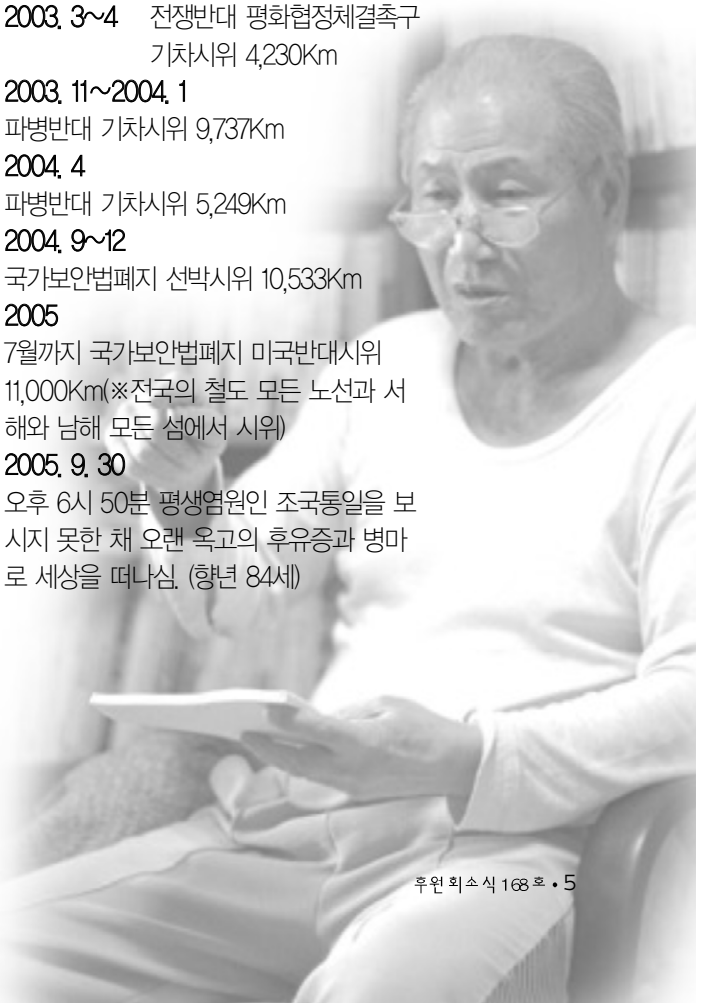
2003. 11~2004. 1
파병반대 기차시위 9,737Km

2004. 4
파병반대 기차시위 5,249Km

2004. 9~12
국가보안법폐지 선박시위 10,533Km

2005
7월까지 국가보안법폐지 미국반대시위 11,000Km(※전국의 철도 모든 노선과 서해와 남해 모든 섬에서 시위)

2005. 9. 30
오후 6시 50분 평생염원인 조국통일을 보시지 못한 채 오랜 옥고의 후유증과 병마로 세상을 떠나심. (향년 84세)



통일애국열사 정순택 선생님께

김 은 | 사무차장

追

양복 반듯하게 차려입고 날렵한 중절모, '미군가라, 미국반대' 큼직하게 적힌 어깨띠에 작은 가방 하나 지팡이 들고 '다녀올게' 하시면 며칠씩 반미시위를 다녀오셨습니다. 귀 어두우시고 걸음이 힘드시니 혹시 어디서 봉변이라도 당하지 않으실까하면서도 누구라 말릴 수 없는 투쟁이었습니다.

돌아오시는 날이면 슬그머니 책상위에 과자며 과일 하나 사탕같은 것을 전리품처럼내려놓고 먹으라고 주시면서 선생님의 어깨띠를 보고 반겨준 이들, 시비를 걸어오는 이들을 설복시킨 이야기들 하실 때면 그것은 하나의 영웅담이고 투쟁일기였습니다.

혼자 먼 길 다니시는 것을 걱정하면 '그까짓 꺼' 하시며 북으로 가기 전에 남쪽 땅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다녀야겠다 하셨습니다.

사방이 책으로 들어찬 선생님 방에 처음 들어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작은 방 구석구석 가지런히 정리된 책이며 자료들은 두고라도 생활에 필요한 건 없는 거 없이 다 있다던 선생님 말씀처럼 그 작은 방은 너무나 살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고 살뜰한 공간에 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많은 이들과 민족과 통일을 고민하시고 실천의 방도를 찾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다정하게 가르쳐주시고 일깨워주셨습니다.

아직도 못 다 들은 이야기 너무도 많은데, 통일 조국, 아드님 보시지도 못하고 선생님 왜 이리 일찍 떠나십니까.

이번 여행엔 좀 힘이 들었다고 돌아오셔서 오래 주무실 때도 몰랐습니다. 아드님께 보낼 편지를 보여주시며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하실때도 몰랐습니다. 탈장수술날짜 잡아놓고 시골가신 분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계실 때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뒤에서 안으면 팔을 활짝 펴야했던 선생님이 언제 그렇게 살이 빠지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큰 병이 들어 생명이 사그러들고 있었던 것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살펴드리지도, 북으로 보내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선생님 황망하게 보내놓고 이제와 후회하고 눈물흘립니다.

양복 반듯하게 차려입고 날렵한 중절모에 작은 가방 지팡이들고 '다녀올게' 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이지만 그렇게 가벼이 떠나소서.

남은 통일조국 꿈은 반드시 저희가 이루겠습니다.

慕

조 의 문

남조선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남조선에 남아있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보내는

공화국의 품에 안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통일을 위해 견결히 투쟁하던 비전향장기수 정순택동지가 장기간의 감옥살이와 모진 고문의 후과로 인한 병고로 사경에서 헤매이다가 지난 9월 30일 그처럼 바라던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사망한것과 관련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바입니다.

동지는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나섰다가 체포된 후 31년 5개월간의 오랜 세월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참을수 없는 박해를 당하였지만 통일에 대한 굳은 신념을 버리지 않고 굴함없이 투쟁하였습니다.

동지는 출옥후에도 참다운 삶을 안겨주고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심어준 공화국을 끝없이 동경하면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의로운 길을 변함없이 걸어왔으며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혈육들이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송환해줄것을 절절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처럼 안기고싶어 하던 공화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비인간적학대와 박해속에 비명에 생을 마친것은 결코 병사가 아니며 비인간적행위에 의한 타살입니다.

정순택동지는 비록 우리의 곁은 떠나갔지만 통일을 위해 바친 그의 한생에 대해 우리는 늘 잊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귀단체와 동지들이 고인의 생전의 념원이였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주체94(2005)년 10월 2일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일동

고 정순택 선생님의 영전에 바칩니다.

비전향 장기수 정순택 선생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다는 비보에 접한 우리들은 안타까움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송환투쟁에서 승리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58년 조국통일시업을 위해 남으로 내려왔다가 체포되어 32년간 옥고를 치를시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2000년 비전향장기수 1차 송환때 신청했으나 전향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시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당시 전향은 모진 고문에 의한 강제전향이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2001년 2월 2차 송환을

요구하며 전향무효선언을 하고 북녁 송환을 요구하시었습니다. 32년간 옥고를 치른 장기수 정순택 선생님께서 2차 송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나신 비보는 분단된 우리민족의 아픈 상처가 뚜렷이 되살아 슬프기 전에 분노가 앞서며 우리들의 부족한 힘이 아쉽기만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노구를 이끌고 장장 4년간이나 전국철도 순례를 하시며 민중들에게 · 반미전도사 · 의 역할을 하시었습니다.

선생님의 투철한 애족 애국의 신념은 마지막 유언이 더욱더 살아있는 우리를 채직질합니다.

"우리 민족과 내 아들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민족의 최후의 적은 미국이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항하지 못한다면 우리민족은 존립할 수 없다. 신심을 다하여 저항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6자 회담이 합의되어 경하할 일이다. 우리민족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심명을 다하여 미국에 맞서야한다. 숭미, 공미하면 주체의식을 잡아먹는 병균이 될 것이다. 미국의 세계화정책은 미국놈들이 아메리카 버지니아주에 상륙하면서부터 이제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강도적인 것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 대항하고 이겨야 한다." 우리 범민련은 선생님의 유훈 '최후의 적은 미국이다'를 우리모두의 가슴에 새기고 생전에 바라시던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 더욱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영전에 우리의 다짐을 맹세 드리면서, 부디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순택선생님이시여, 고이잠드소서.

2005년 10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故 정순택 선생님께 드리는 조사

비전향 장기수 정순택 선생님이 통일된 조국에서 40여년동안 갈라졌던 가족들과의 상봉도 이루지 못하시고 서거하셨다는 비보에 접한 우리들은 머누나 슬프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와 실천으로 선생님이 그토록 애타게 바라시던 조국의 통일의 그 날이 바로 눈 앞에 다가오고 있기에 선생님의 타계가 더욱 아쉬워지기만 합니다.

우리들은 불굴의 의지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헌신해오신 통일애국지사이신 정순택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고귀한 뜻을 이어 6.15공동선언의 기치인 우리민족끼리 이념으로 굳게 단합하여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3대공종로 반미조국통일운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선생님이시여, 고이 잠드소서.

2005년 10월 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김성환 | 삼성일반노조위원장(부산교906)

권오헌 선생님께

서승선생의 '옥중 19년' 책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쇠사슬로 묶을 수 없으리'의 글을 아픈 마음으로 어제 밤새 읽고 오늘 오전에야 다 보았습니다.

글 속에서 승선생의 19년 감옥살이 동안 어머님께서 이어 아버님께서 돌아가심을 후에 아셨다는 그 원통한

마음에 눈썹이 젖었습니다. 나 역시 부모님의 임종을 못 지키고 장례마저 빼먹고 참여할 수 없어 못 모셨지만

늦게라도 삼오제라 하여 형집행정지로 나가 묘소에 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나 결단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청산되어야 할 -군부독재정권과 같이- 천민자본은 물신화되어 족벌세습경영 유지와

극대이윤착취구조를 위해 온갖 불법비리 범죄행위를 자행하여도 체벌은 커녕 은폐되고

국가권력에 의해 면죄부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생활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까지 좌지우지하고

물욕이 최고의 가치인양 이 나라를 천민사회화 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자본주의에 있음을 보지 못하고,

또한 한 줌도 안 되는 천민자본의 욕심과 농간에 있음을,

재벌의 이익을 위해 정치모리배와 결탁하고 사법권리의 비호의

실체에 자행되는 사회적 착취구조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물신에 눈이 멀어 친일파 군부독재 박정희의 통치시대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박정권 그 폭압정치는 18년의 부정부패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노동자 민중의 피와 눈물과 아픔이

넘친 오욕에 대한 투쟁의 역사임을 천민자본의 물신들은

의도적으로 외면 은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자리가 사람을 평가한다고 더러운 물신의

가치를 홍보하지만 내가 부산교도소에 갇혀 감옥살이

한다하여 천박한 삼성 족벌이 나를 죄인으로 매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권선생님, 참 말씀 안 드릴 수 없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갑니다.
부산교도소에 기결수로 감옥살이 하는
(주)금강화섬 박태규 동지와 같이 울산구치소 안기호
위원장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단식투쟁을 이어 싸울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삼성족벌 무노조 노동자 탄압 인권유린 뇌물수수 이건희 구속 처벌
– (주)금강화섬 정상조업, 생존권 사수
–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 교도서 서신 사전 검열제도 철폐
– 모든 공안사범, 양심수 즉각 석방 등의 주장을 하며

9/4 현자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의 자결, 9/10 부산 화물연대 조직원의 분신자결투쟁에 같이 분노하며 싸우고자합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후회 없이 억울한 감옥살이 본전을 뽑고 나가 뵙겠습니다. [illegible] 선선하니 가을 같습니다.
추석 한 가위 잘 지내셨는지요. 양시인 사가 늦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정말 [illegible] 내십시오.
후원회 일꾼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안부전 [illegible]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 05.9.17 부산교도소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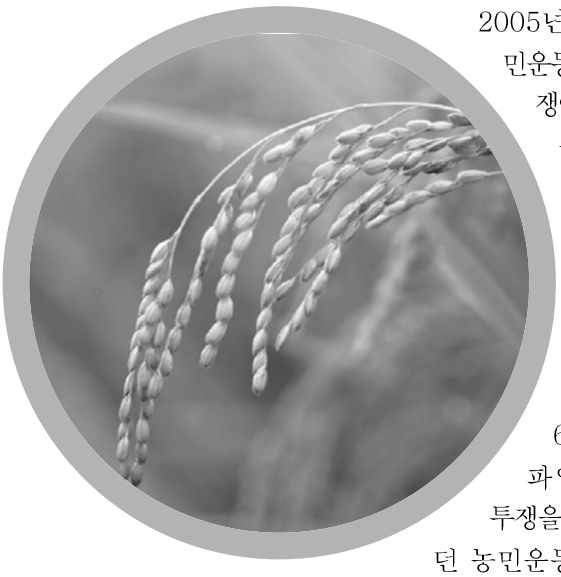
편집자주 :
김성환 위원장은 건강악화로 인해 지난 9월 4일로 15일간의 단식을 접고 요양중이라고 합니다. 양친을 감옥안에서 여의고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드시다라 합작됩니다. 힘내시고 어서 건강회복하시기를 빕니다.

◀ 뉴스툰 2005년 9월 21일

경향만평 2005년 9월 29일▶

10.28 농산물출하거부투쟁을 앞둔 전농 하반기 투쟁

전국농민회총연맹 | 편집부 정리



2005년 하반기 농민운동 진영의 투쟁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상반기 "WTO반대!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6.20농민총파업"을 향해 투쟁을 상승시켜왔던 농민운동은 때마침 폭발한 '쌀협상 이면합의' 정국과 맞물려 쌀협상 국정조사를 성사시키며 6월 국회비준을 끝내 저지하고야 말았다.

7,8월 잠잠해 보이던 농민운동은 9월 정기국회의 시작과 더불어 더욱 힘찬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상반기 6월 정기국회에서 국회비준을 실패했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강행처리하기 위해 정부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게 동원령을 내리는 등 어느 때보다 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9월 10일 여의도에서 1만 농민들이 모여 개최한 "2005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WTO반대/우리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는 하반기 투쟁의 봉화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전농의 하반기 투쟁을 2가지 방향으로 정리하자면, "사대매국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투쟁"과 "부산에서 부시잡고 홍콩에서 WTO 박살내는 반세계화 투쟁"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잘 알겠지만, 이 두 가지 투쟁방향은 전혀 다른 성격의 2가지 투쟁이 아닌,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투쟁이 2가지 방향으로 분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쌀협상 국정조사 등에서 밝혀졌듯이 사대매국 쌀협상의 진짜 배후조종은 바로 미국이었으며, 미국의 압력 때문에 350만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1월 부산 APEC회담과 12월 홍콩 WTO 각료회담은 미국의 치밀한 조종하에 벌어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집행회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농은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투쟁"과 "반세계화 투쟁"를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으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5.15 송정리 미군기지 철거투쟁'으로부터 '9.11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으로 이어지는 투쟁이 미국의 군사적 예속을 끊기 위한 것이었다면,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투쟁'과 '반세계화 투쟁'은 농민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임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예속을 끊기 위한 중요한 투쟁이다.

전농은 이 중요한 투쟁과제를 승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투쟁계획을 내놓고 있다.

우선 9월 10일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전국농민대회"를 시작으로 "농산물 출하거부 약정운동"과 "대규모 적재투쟁"으로 350만 농민들의 투쟁열기를 모아 "10.28 2차 농민총파업", "11.18 부산 APEC회담 저지 전국농민대회", "12월 홍콩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으로 상승발전 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12월 홍콩 WTO각료회의 저지 투쟁을 위한 홍콩투쟁단에는 현재 1,300여명이 넘는 참가단이 모집된 상황이어서 한국정부는 물론 홍콩당국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물론, 위의 투쟁과제를 성사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녹녹치는 않다. 10월이 추수철 농번기라는 점과 갈수록 거세지는 개방농정의 파고가 농촌현장 깊숙이 파고들어 투쟁동력을 일으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동안 단순히 구호로만 여겨졌던 전농의 "통일농업 실현" 구호가 이제 남북 당국이 만나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내에 통일농수산 의원포럼이 결성되는 등 구체적인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볼 때에 현재 전농이 벌이고 있는 식량주권 사수, WTO 반대 투쟁도 머지않아 성과를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수입쌀이 시중에 풀리기도 전에 폭락하는 쌀값을 보며, 여름내 피땀 흘려 키운 나락이 수확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농민들의 이마에는 주름살만 늘어가고 있다. 올해는 병충해로 인한 피해 등 풍년이 아님에도 쌀 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데 농민을 살리기는커녕 수매제를 폐지하였다. WTO 때문에 쌀 협상을 한다면서 정작 미국에게 28%의 시장점유를 보장해주는 이면합의를 하였고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나라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정부의 고유 권한인 입찰규격마저 다른 나라의 구미에 맞게 변경해주는 각종 이면합의를 진행하였다. 결국 중국, 아르헨티나 등에게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검역마저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미국과의 이면합의를 무마시키는데 더욱 힘쓴 쌀협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면합의 실상을 밝혀놓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쌀협상의 국회비준을 강행하고 있다. 분노한 농민들은 자식같은 곡식을 걸고 목숨 건 투쟁을 준비한다.

고 김병권 선생님을 추모하며

김혜순 | 후원회원

제가 선생님의 부음 소식을 들은 것은 하늘이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던 9월 21일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느라 바쁘게 움직이던 새에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 시간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감정이 잘수습되지 않아 한참을 차에서 있고서야 다음 수업을 할 수 있었지요.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그때는 여섯 살이던 성재를 데리고 선생님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러 용인에서 평촌으로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나던 기억이 선명한데 선생님이 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써놓은 선생님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등지셨다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삶은 곧 한국현대사와 맞물려 계십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가난을 이기지 못해 일본으로 떠나셨던 선생님은 해방이 돼서야 그리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셨지요. 그러나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조국,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탐욕스런 모습을 보고서 선생님은 당신의 고향이자 혁명 세력의 고향이었던 대구에서 사회당 정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민족의 미래를 꿈꾸던 4.19 혁명이 5.16 군사구데타로 막을 내리던 61년, 긴급조치법으로, 구속되신 선생님은 소위 남조선 해방 전략당이라 이름 붙여진, 실체도 없는 조직의 일원이 되어 68년 다시 5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직적인 혁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선생님은 고 이재문, 신향식 선생님과 함께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려다 또 막걸리 반공법으로 3년 반을 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이때 이재문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동지적 애정은 제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었습니다. 형이 끝나도 집에 올 수 없는 세상이 되어 79년 청주보호감호소로 이송된 선생님은 거기서 독재자 박정희의 죽음을 듣게 되지요.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나 보다, 한참 기대에 부풀다가 다시 남민전 사건으로 입건되어 옥중에서 재판을 받고 1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고 책상에 엎드려 엉엉 울던, 그 때문에 가지 못한 수학여행도 전혀 아깝지 않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전 빨리 자라 청년이 돼서 이제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85년 5.3 인천투쟁부터 시작한 짧은 제 민주화투쟁 경력이 87년 민주화 대투쟁이라는 큰 파고를 넘을 때 전 시청 앞에서 그 많던 전경들을 몰아내고 해방된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었지요. 선생님이 길 밝혀준 쉼없는 투쟁의 길에서 저는 선생님과 잠시 조우할 수 있는 영광을 얻는 셈이지요.

그때부터 신문도 볼 수 있고 바깥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다지요.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과 가족들의 오랜 석방 투쟁으로 남민전의 동지들이 모두 나오게 되고 선생님도 88년 12월 형집행 정지로 출소하셨습니다. 그때 고령인데다 혈압으로 쓰러져 몸이 불편해 감옥 안에서 생을 마칠 것이라 여기며 아드님에게 주려고 써두었던 시 한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示子(아들에게 일러둔다)

人逝百知萬事終 사람이 죽고 나면 만사가 끝나는데
但哀未見祖國同 조국이 하나 됨을 못 본 것이 슬프도다
平和統一成就日 언젠가 평화통일이 이룩되거든
家祭無妄泌告父 제삿날 잊지 말고 아비에게 고해다오

한데 그때 써두었던 시가 지금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지만 얼마나 더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20여 년의 옥살이와 끝없는 투쟁을 하시고도 하나 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가셔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선생님의 투쟁은 멈추질 않습니다. 통일운동의 선봉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의 결성에 참여하시고 또 옥고를 치루시고 2003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활동이 불가능할 때까지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지하철역에 6.15공동선언 실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물려주자며 광고판을 붙이시고.....정말 우리 역사에 바쳐온 선생님의 노고는 얼마만큼인가요.

선생님이 온 생을 통째로 통일운동에 바치는 동안 가족들의 고통을 혼자서 감내하던 사모님은 선생님이 이제 감옥과 담 쌓을 때쯤 정신을 놓아버리셨다지요. 낮 동안 요양시설에서 지내다온 사모님을 큰길까지 마중하면 그길로 예쁜 꽃신을 방안에 가지런히 놓아두던 사모님의 모습이 한점 꽃이 되어 떠돕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시고 소년처럼 해맑게 웃으시던 선생님, 유난히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셨던 선생님. 불편한 몸도, 칠십이라는 나이도 투쟁의 길에서는 전혀 방해가 될 수 없었던 순결한 선생님을 어디서 다시 뵈올 수 있을런지요. 선생님께서 뿌린 씨앗들이 이제 막 튼튼한 뿌리를 내리려 하는데 가시다니요. 너무나 아쉽고 속상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국화 한 송이, 눈물밖에 드린 것이 없지만 통일 운동선상에서 한 치의 오점도 남기지 않고 바른 길만을 골라 걸으셨던 선생님처럼,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조국 통일 한길로 달려온 선생님처럼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선생님, 부디 그곳에서는 넉넉하고 편안한 삶 되십시오.

2005. 10. 6

안타까운 마음으로 김혜순 올립니다.

편집자주

김병권 선생은 지난 21일 향년 84세로 타계했으며, 생전에는 1960년 사회당 경북도당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1968년에는 소위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으로 투옥돼 옥고를 치렀으며 1973년 석방됐다가 3년 뒤인 76년 2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를 결성해 다시 그 해 3월 반공법으로 구속된 뒤 3년 6개월 실형을 언도받았다.1979년 청주보안감호소로 이동돼 남민전 사건으로 옥중재판을 해 15년 구형을 받고 1988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고인은 1991년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에 참여했으며 타계하기 직전까지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연대 고문직을 맡아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을 하늘 만큼이나 드높은 사람

오영순 | 편집위원

지지난호에 이런회원 취재를 정중히 거절한 것 때문에 부러 미안함이 더해서일까? 바쁜 일정에도 먼 거리를 마다않고 필자가 있는 곳까지 걸음해 준 김희선 회원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전화 목소리에서 불현듯 그려본 회원에 모습 또한 비슷해서일까? 사뭇 말을 건네기도 힘들 법한 완고한 회원에게서 되려 편안함과 설레임을 느꼈으니 말이다.

서른 두 살 늦은 나이에 자상하고 신념이 강한 신랑을 중매로 만나 가정에 보금자리를 이루고 산지 십삼여년! 그 세월만큼이나 지혜로운 아내이자, 어머니인 모습을 지니며 살아온 김희선 회원에게서 고운 자태가 묻어나고 있었다.

무남독녀로 태어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자란 김희선 회원은 학창시절 모범생답게 공부를 월등히 잘한 우수학생이였다. 그러나 사회에서 필요한 우수생은 실천에서 터득한 생활인이기에 다 부질없노라 한다.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였으나, 아내가 직장 다니는 걸 내켜하지 않은 남편 뜻에 따라 준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직장 생활을 그만 두었고, 막내지만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남편에 상황을 받아들여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후회없이 하고 있다는 걸 보니 아마도 남편을 많이도 사랑하고 믿었나 부다.

그럼에도 회원은 자신이 복받은 것이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며느리가 신혼시절부터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집안에 문화와 관습을 빨리 터득할 수 있어 되려 행복했다하니 말이다.

신념이 강한 시부모님과 남편에 이력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구별하여 봐달라 하는 회원에 마음이 어여뻐서일까? 며칠전 정순택' 선생님 간병인 역할을 자초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회원에 모습이 맑고 순수하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제친지 두어 시간, 소식지에 대한 책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회원을 섭외하고 원고를 쓰는 순간들이 힘겨움으로 자리한 필자로써 사실 이런 회원을 만나는 시간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그러나 이런 필자에 마음을 언제나 맑게 씻기워 주는 건 항상 회원들이다. 참 좋은 회원을 만나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흠뻑 빠져 좋은 인연을 맺게 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하니 말이다.

어둑해진 대학로 거리를 가로질러 역사 앞에서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뒤돌아서는데 불현듯 낮에 올려다 보았던 가을 하늘이 떠올랐다.

주어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슬기로움으로 헤쳐나가는 회원이 고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게다. 가을 하늘 만큼이나 드높고 쾌청한 마음을 지닌 김희선 회원에 앞날은 언제나 건강하리라 믿는다.

후원회 산행에 가면 자주적인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봉주 | 회원

누가 '산에 왜 가는가?' 하고 물을 때면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라고 한 유명한 등산가의 답을 인용하곤 했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스스로 찾는 수밖에….

이번 산행은 청계산이었다. 추석으로 인해 한 주 늦은 넷째 주 일요일, 9월 25일 오전 10시 양재역 근처에 모여 몇 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고, 서초구 원지동으로 향하였다. 산행의 출발지 원터골은 조선 시대 출장하는 관원들을 위한 국영 숙식 시설인 원의 터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출발점검을 해보니 인원은 26명, 노소남녀가 고루 참가하였는데 어린이는 김건우 혼자라서 마음이 쓰인다. 짐을 나누고, 막걸리와 음료수를 사들고 오르기 시작했다. 산은 서울 서초와 경기 과천, 의왕, 성남에 걸쳐 있단다. 바윗길이 거의 없어 산행로가 완만한 편이며, 황토흙 덮인 오솔길이 자주 나타난다. 다만 잘(?) 조성된 계단길 때문에 오히려 무릎이 불편하다. 우리 주변에는 가벼운 차림의 연인 · 가족 단위의 등산객들이 많이 띄었다.

그동안 산행에서도 선생님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여쭈고 또 배웠는데, 이번에는 김수룡 선생님 곁을 따라 오른다. 선생님께서는 간간이 지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는다. 덕담도 건네신다. 흰 수염과 웃음 띤 얼굴에 재치 넘치는 말솜씨에 다들 즐거워한다. 나도 더불어 웃고 되새기면서 선생님께 더 다가갔다. 또 점심을 들면서는 이종린 선생님께서 생활의 지혜를 나눠주셨다. 선생님들의 그 말씀들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음식은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약수터에서 잠시 휴식하는 동안 김호현 부회장이 준비한 멸치와 함께 한잔씩 나눈 막걸리 맛에 이창희 회원이 먼저 환호했다. 여기저기서 "옳거니, 올채(사투리), 아~" 하며 맞장구친다. 그리고 매봉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고갯길에서 먹은 늦은 점심은 푸짐했다. 한두 가지씩 마련한 각 집안의 진미들은 그립던 분들

몫까지 챙겨오느라 충분하고, 그것들이 이쪽저쪽 상들을 넘나들다 보면 그 정이 이번에도 넘쳐흘렀다.

점심 후 매바위까지 다녀온 회원들이 도착하자 다들 원터골 쉼터에 자리 잡았다. 이어진 시간은 문학평론가이자 역사문제연구소장이신 임헌영 선생님의 강의였다. '6·15선언 공동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를 통해 돌아본 평양과 근교의 산천, 문화유적,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셨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 강물인 양 흐르다, 어느 땐 빙긋이 웃고, 어느 땐 절로 고개 끄덕이고, 또 어느 대목에서는 아쉬움에 침이 말랐다. 가슴속으로 나마 남녘과 북녘이 어서 손 맞잡고 공동번영할 그때를 가까이 느껴본 시간이었다. 이어진 뒤풀이에서는 친일파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한 말씀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 아쉬웠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투병중인 정순택, 조만조 선생님 등에 대한 소식이었다. 권오헌 회장님의 근심서린 말끝에 나는 탄식과 송구함이 교차했다. '그분들이 소원하시는 통일이 어서 빨리 되었으면…'

나는 왜 후원회 산행에 함께하는가? 늘 그렇듯, 그곳에 가면 뜻 맞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배우는 기쁨이 있고, 회원간 나눔의 정겨움이 있고, 삶의 나아갈 방도가 있고, 몸과 마음의 건강이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겸손과 자부심이 있다.

알립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전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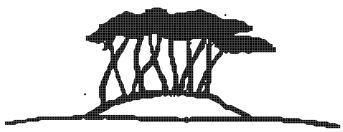
민족21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6·15시대 통일잡지 민족21이 어느덧
창간 5년이 되어갑니다.
화해통일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는만큼
민족21이 해야할 일도 많아집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나아가 한반도 정세 전반을
꼼꼼히 분석하는 통일일꾼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통일언론 민족21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독자가 아닌 후원자로 모시겠습니다.

■정기구독 신청■
Tel : (02)336-6150, Fax : (02)336-6128(팩스)
E-mail : webmaster@minjog21.com

10월 산행

10월은 단풍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봉산 만경대 단풍이 절경입니다.
오랫만에 가을산에서 만납시다.



■ 가 는 곳 : **도봉산**
■ 일 시 : **10월 16일(일) 오전 10시**
■ 모이는장소 : 도봉산 입구 안내판 아래
■ 준 비 물 : **간단한 도시락과 회비 3,000원**

알립니다

재일교포 양심수의 어머니

조만조 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민가협창립 때 공동의장을 하셨으며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과 부회장을 맡으셨던
조만조님이 2005년 10월 3일 새벽, 간암 등으로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조만조님은 1922년 2월 22일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시어 부모님을 따라 일본에 가셨다가 조국 광복과 함께
귀국하여 고향에 계시다가 1970년 서울에 올라와 성북구 안암동에 사셨습니다.
1975년 재일교포로서 고려대학에 유학 중이던 이철님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딸 민향숙씨가 동반 구속되자 조만조님은 따님과 이철님 석방운동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100여명이 넘는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에 맞서 무죄석방운동을 열정적으로
벌였습니다. 따님이 먼저 석방되고 이철님은 1988년 10월 석방되어 그해 명동성당에서
김수한 추기경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만조님은 민가협 창립 때 공동의장을 맡으시어
재일교포사건 석방운동을 벌였으며 1989년 양심수후원회가 결성되면서 운영위원을 맡았던 사위
이철님이 일본으로 들어가자 운영위원을 맡으셨고
그 뒤 부회장으로 비전향장기수 석방과 후원사업에 헌신하셨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수유1동 성당으로 옮겨 빈소를 차렸고 3일장으로 하여 10월 5일 수유동성당에서
함세웅신부님 집전으로 영결미사를 드리고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고이 잠드소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5년 회원역사기행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양심수후원회와 함께합니다

■ 가 는 곳 : **지리산일대** ■ 일 시 : **11월 5일~6일(토,일)**

| 기간 회원 역사기행 |

1993년 동학농민전쟁 및 민중항쟁:전남 담양 가마골, 전북 정읍 황토현, 내장산 등
1994년 백제의 고도 : 공주, 부여일대
1995년 분단의 현장 : 철원, 임진강, 연천지역 일대를 찾아서
1996년 항일의병유적지 : 제천, 충주지역
1997년 무진장 깊은 산골 : 무안, 진안, 장수지역
1998년 농민전쟁과 의병전쟁 : 예산, 홍성, 서산지역
1999년 수난과 저항의 섬 : 강화도
2000년 단재, 벽초, 지용 그리고 노근리를 찾아서 : 충북 괴산, 청주, 영동, 옥천지역
2001년 21세기 길목에서 민족을 떠올리며 : 경기남부 매향리, 수원 화성, 고달사터
2002년 우리민족 통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경기북부와 철원인근지역
2003년 순창, 담양지역 빨치산 전적지 답사와 정읍지역 갑오농민전쟁 역사 유적지를 찾아서
2004년 공주 부여일대 백제와 우리고대사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FAX : 02-888-4350 ■E-mail : yangsimsu@hanmail.net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기타( )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5년 09월 27일 / 민가협 조사 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가미결
이문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크레인시위"	05-05-17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부산구 6016	미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4-08	업방, 폭력	1년6월+1년	2007/11	부산구 6019	기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부산구 6060	미결
박승주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부산구 6013	미결
이종화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부산구 6061	미결
이춘근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부산구 6018	미결
최영철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부산구 6008	미결
김우용	노동자	기아자동차노조	경제특구반대시위	04-02-22	업방, 집시	2년6월	2005/12	청주교 65	기결
김용직	노동자	민주노총(충북)	하이닉스 노조 집회 등	05-06-13	집시, 특공	1년6월	상고중	대전교 1313	미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05-02-22	명예훼손, 정통법	8월	상고중	부산교 906	미결
구재보	노동자	세원테크노조	이현중열사 관련	03-12-22	폭력, 업방	1년6월+2년6월	2006/04	대전교 1959	기결
박용규	노동자	㈜동진이공 노조	노조활동 관련	05-06-29	공방	1년	항소중	대구교 1559	미결
정석윤	노동자	㈜동진이공 노조	노조활동 관련	05-06-29	공방	8월	항소중	대구교 1865	미결
엄기준	노동자	㈜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03-12-10	집시, 폭력	1년6월+2년6월	2007/12	대전교 2999	기결
박태규	노동자	화섬연맹	노동자대회(11.9)	03-11-12	집시, 폭력	1년6월+1년6월	2006/11	부산교 1406	기결
이승규	재야	다산인권센터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7-28	병역법			수원구 813	미결
이원표	재야	사회당(대전)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11-02	병역법	1년6월	2006/05	대전교 800	기결
문상현	재야	사회당(서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7-19	병역법			청주교 844	미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04-06-20	특가법	1년+6월	2006/02	원주교 891	기결
임성환	재야	아웃사이더㈜ 대표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09-08	병역법	1년6월	2006/03	영등포구 2579	기결
염창근	재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12-01	병역법	1년6월	2006/06	충주구 654	기결
최 진	재야	작은 누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6-28	병역법	1년6월	2006/12	대구교 1557	기결
강태운	재야	전 민주노동당 고문	회합통신 사건	03-08-15	국보	6년	2009/08	대구교 90	기결
임재성	재야	전쟁없는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1-28	병역법	1년6월	2006/07	충주구 865	기결
김영재	재야	전철연	강제철거반대(상도동)	04-01-19	공방, 폭력	2년	2006/01	서울구 76	기결
채남병	재야	전철연(고양풍동)	강제철거반대	05-01-31	폭력, 공방	2년6월	항소중	의정부교 664	미결
조영귀	재야	전철연(수원망포)	강제철거반대	05-02-17	집시, 폭력	1년6월	상고중	서울구 2658	미결
남현희	재야	전철연(십정동)	청와대앞 1인시위	05-07-04	집시, 폭력			서울구 74	미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50	미결

지광호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17	미결
홍경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5-20	특공,공방			수원구 414	미결
이영자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157	미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15	미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5-03	화염병, 치사			수원구 339	미결
방영철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46	미결
정형용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37	미결
손정민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29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40	미결
정용표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30	미결
이병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25	미결
김완규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19	미결
유경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48	미결
최진용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13	미결
김희수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38	미결
김흥중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06	미결
김기준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01	미결
장광배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24	미결
강재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21	미결
이재남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03	미결
배용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36	미결
이용이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34	미결
한호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51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58	미결
이복만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28	미결
오태양	재야	좋은 벗들(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08-30	병역법	1년6월	2006/02	충주구 894	기결
유호근	재야	희망동네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2-17	병역법	1년6월		의정부교 1550	기결
임치윤	학생	동아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09-07	병역법	1년6월	2006/03	부산교 1655	기결
전위봉	학생	부산대	한총련불탈퇴(11기)	05-08-13	국보			부산구 6017	미결
나동혁	학생	서울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08-31	병역법	1년6월	2005/12	서울구 2360	기결
이성한	학생	서울대대학원졸	북한 방문	05-07-22	국보			서울구 22	미결
박지현	학생	중앙대	한총련불탈퇴(12기)스토이커시위	05-09-21	국보,집시			수원 중부서	미결
조정의민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5-17	병역법		항소중	서울구 2322	미결

01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청와대 부근 옛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미군주둔60년에 즈음한 노무현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열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여는말,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주한미군철수 맥아더 동상 철거 촉구발언이 있었고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강정구 교수의 보안수사대 출두에 앞서 사회단체 대표들 서울경찰청을 방문, 최병민 보안부장 만나 강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불가피성 발언에 대해 그 이유를 추궁하고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과 학문영역은 학술토론에 맡겨야지 사법처리 해서는 안되며,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법처리 발언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조현경 향린교회 담임목사, 변연식 천주교인권위 공동대표, 박석분 평통사 총무국장, 동국대 학생이 함께하다.

민가협 583회 목요집회. 조순덕 상임의장의 여는말, 임기란 운영위원의 경찰 보안분실 폐지주장발언에 이어 이영 총무의 테러방지법 법안발의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성명 낭독이 있었고 지난 8.15특사로 출소한 이동진(경상대, 6년 수배끝에 구속), 조현수(청송군 농민회)씨의 출소인사와 아버님 삼오제를 모시기 위해 형집행정지로 잠시 나온 김성환(삼성일반 노조 위원장)씨의 인사가 있었음.

02

옥인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강정구 교수 보안수사대 출두에 맞춰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등 교수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다.

같은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주최로 '강정구 교수 경찰 출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을 열다. 홍근수 평통사 대표의 여는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규탄발언, 강정구 교수의 신상발언,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의 지지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강정구 교수 보안수사대에 들어가 조사를 받고 오후에 집에 돌아오다.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층 강당에서 비전향장기수 추진위원회 주최로 '비전향장기수 송환 5돌 기념 및 2차 송환촉구대회'를 열다. 송환희망 비전향장기수와 사회단체성원 등 12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노진만 집행위원장 사회로 임기란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 권오헌 상임공동대표의 기념사,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송환촉구결의발언, 허찬형 송환희망자의 전쟁포로 송환 촉구 발언, 9.2송환 이경구 선생의 부인 김송단 님의 편지 낭독 등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혜조 스님과 진광수 목사가 송환촉구성명서를 함께 읽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운영위원, 이정규 감사, 김혜순 회원, 김은 사무차장 함께.

건국대에서 9.2~3일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인권, 공존'이란 주제로 제4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법률가 회의'가 열리다. 이기욱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이 이 회의의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회의 참가자들은 · 평화롭게 살 권리 · 미국에 의한 침략전쟁 규탄과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팔레스타인의 자주결정권지지 · 대량 살상무기를 빌미로한 특정국가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제재로 인한 인권침해 반대 · 이주 노동자,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 한(조선)반도의 평화통일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4회 아태 법률가 회의(COLAP-4)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대법원 판결을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결사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음이 이 날 확인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정은 2001년 건국대 부총학생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사상, 양심의 자유(18조 1항), 표현의 자유(19조 1,2항), 결사의 자유(22조 2항)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하고 통보자(이정은)에게 적절한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7조 등의 개폐할 것을 권고하다. 이정은 학생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자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상임공동대표 권오헌 외) 법률지원단을 대표하여 김승교 변호사가 2002년 8.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 통보 제도에 따라 한총련 이적 규정의 부당함을 인권이사회에 제소했었음.

03

평택의 팽성읍 대추초등학교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평택 주민촛불집회 1주년 문화제'가 주민들과 청년학생 등 4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리다. 대책위 송태경 홍보국장 사회로 청년학생들과 모두 2리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으로 막을 올려 김지태 팽성대책위원장의 인사말,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의 결의발언, '변호사 일본-코리아협회' 에이메현 히가치 회장의 헌금증정과 연대발언, 민중가수 정태춘 씨 등 노래공연이 있었고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결사항전 선포문' 낭독이 있었음.

04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정순택 선생님께서 탈장 등 증세로 보라매병원 응급실에 검진을 받으셨음. 선생님은 지난달 18일 하복부통증 등 불편하여 동네 병원에 가시어 탈장 진단을 받으셨고 보라매병원에 의뢰서를 가지고 19일에 가셨으나 23일에 다시 오라하여 약속한 날에 초음파검진 을 받았고 26일 탈장이라는 검진결과 통보를 받으셨음. 9.7일 입원하여 9.8일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고 음성 생질 집에 내려가셨으나 복부통증이 심하여 음성의 권외과와 성심병원 등에 가시어 검진을 받으셨음. 이들 병원에서도 장이 막히고 가스가 찼으니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하여 이날 보라매 병원 응급실로 오시게 되었음. 많이 고통스러워하셨고 오후 늦게 C.T촬영을 했음. 병실이 나지 않아 응급실에서 밤을 지내셨음. 조카 정태권 님이 간병을 하셨음. 김은 사무차장, 김호현 운영위원, 권오헌 다녀왔음.

인천전문대 체육관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주최로 아시아육상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측 청년학생 협력단과 선수단을 환영하는 연찬모임이 있었음. 인천 겨레하나 김광대표, 북측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청소년 교양지도국 부국장, 인천대학교 이선희 총학생회장, 김일성 종합대학 김영심 학생 등 인사말이 있었고 남북의 문화공연이 이어졌음. 한편 이날밤 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주최로 환영만찬도 있었음.

05

정순택 선생님의 C.T촬영이 판독되다. 어딘지에서 전이되어온 암세포가 간에 덮였다는 병원측의 통보. 뜻밖의 진단 소식에 낙성대 만남의 집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과 안학섭 선생님 문병다녀가심. 권오헌 대표, 안영준 외과담당교수(CT 판독한)와 통화하면서 정순택 선생님 신

분을 알려드리고 최선의 방법 취해줄 것 요청하다. 안교수는 '탈장' 만 수술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음. 노약할 뿐 아니라 근본 치료가 아니기 때문이었음. 오후 늦게 2인실 병실로 옮기시다. 조카님들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다. 선생님은 1차 송환에서 제외되고 이제 하루가 멀게 송환날만을 기다리고 계신데 불치의 암이라니 너무도 안타깝기만 하다. 간병일지 노트 등 준비하다.

06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에 따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을 열다. 정광훈 민중연대 대표의 여는말, 차지훈 변호사의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 해설, 기승교 변호사의 이사회 결정 경과보고, 송효원 한총련 의장의 입장 발표,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장의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정치수배해제 촉구발언,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보라매병원 입원중이신 정순택 선생님 통증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있음. 복수가 차고 있는 것 같음. 정선생님 아직도 탈장수술만 하면 괜찮을 것으로 알고 계심. 조카분들 생질들 다녀가심.(4111호실에서 5217실로 옮김)

07

- 정순택 선생님 담당 의사만나 병세와 치료 방침 등 이야기 나눔. 일단 탈장수술은 내일 하는 것으로 했으나 암세포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음.

- 민주공원 건립추진과 관련, 계승연대 대표들(박중기, 오종렬, 권오헌), 유가협 강민조 이사장과 신동숙 회장 만나 의견 나눔.

- 종로 밀레니엄 타워 건물 앞에서 민간인 학살 전국유족회 주최로 채의진 공동대표의 삭발식을 갖고 가족 이름이 적힌 1000여개의 위패를 갖고 삼일빌딩까지 행진하다. 이어 28층 후원의 밤 행사장에서 한국전쟁 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창립 5주년 기념식을 진행, 김영훈 상임공동대표의 여는말, 이이화 상임공동대표의 기념사, 강만길 광복 50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 지난 5년간 활동한 동영상 상영이 있었으며 기념연회에서는 이이화 대표의 인사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연대 결의발언이 있었음.

-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민중여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전빈련 등 54개 시민사회단체는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대표자회의 발족 기자회견' 을 갖다. 국민행동은 아펙(APEC)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개막행사장인 부산 등지에서 부시방한과정상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다.

-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 민족 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남, 북, 해외본부는 이날 9.8 미군강점 60년을 맞아 지난 60년 미군범죄를 규탄하고 미군철수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미군강점 60년을 맞이하여 온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에게 보내는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 공동호소문' 을 발표하다.

08

- 정순택 선생님 병세(암진단) 처음으로 언론에 알리다.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 권오헌 대표는 통일뉴스 기자와 만나 대장에서 간까지 암세포가 퍼져있어 손을 쓸 수 없는 사실을 인터뷰하다. 정선생님 오전 탈장수술.

-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범남본, 전농, 한총련, 평통사, 사월혁명회, 양심수후원회 등 11개 단체 공동으로 '9.8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기자회견' 을 열다. 이경원 범남본 사무처장 사회로 이규재 범남본의장의 여는말,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의 주한미군 신속기동군화 규탄발언, 송효원 한총련 의장의 '남북해외 공동성명서' 낭독이 있었음. 이어 맥아더 동상을 밧줄로 넘어뜨리고 모든 살인무기와 함께 미국으로 쫓아버리는 상징의식을 가졌으며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남, 북 사진전도 있었음. 공동성명서는 북측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북측 준비위, 범민련 북측본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직업총동맹 등 11개 단체와 해외에서 범민련 해외지역본부 등 12개 단체 등 모두 34개 단체와 함께하다.

- 통일연대, 민중여대 공동으로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미군강점 60년 주한미군철수선포 기자회견' 을 열다. 참가자들은 미군강점 60년을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의미의 성조기를 내리고 단일기를 계양하는 상징의식을 갖고 '주한미군철수선언' 을 선포하다. 한청 전상봉의장, 전농 문경식 의장,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음.

- 후원회소식 167호 원고최종교정, 기획사에 넘김.

- 민가협 584회 목요집회

09

- 통일뉴스 보도에 이어 보라매병원 정순택 선생님 병동에서 한겨레 신문 기자와 만나 정선생님 살아오신 길과 송환을 기다리는 상황, 암진단과 투병관련 인터뷰를 하다. 기자는 양심수후원회원이라고 하며 정선생님과 짧은 필담을 하였음.

- 명동 '한 · 하늘 · 땅'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 긴급 대표자 모임을 갖고 오는 13일 정순택, 강담선생 등 암 투병환자를 비롯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기자회견을 갖기로 협의하다.(권오헌, 권낙기, 노진민)

- 강정구 교수가 두 번째로 보안수사대에 나가 조사를 받다. 이와관련 옥인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향린교회 성원들과 동국대 학생들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상, 표현, 양심 탄압중지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법처리 반대 기자회견' 을 열다. 향린교회 조현경 목사,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동국대 류민지 학생 등이 사법처리 중지 촉구발언을 하다. 보라매병원 정순택 선생님께 통일광장, 민가협 회원들, 한상렬 목사님 문병.

10

- 휴일을 맞아 간병 아주머니가 쉬시기 때문에 양심수후원회원들 정순택 선생님 간병을 하다. 칼슘, 알부민 수치 부족현상. 강덕환 김희선, 이정태 운영위원 간병, 송창학, 주경임, 변의숙, 장재영 이승미, 이재필 회원 문병.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서울 통일연대, 서울 민중연대(준) 공동으로 '미군강점60년 청산 서울지역 반미문화제' 를 열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1개 농민단체는 여의도공원에서 농민과 시민사

회단체 성원 6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WTO반대 우리쌀지키기 2005년 전국농민대회'를 열다. 문경식 전농의장의 대회사,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의 연대사 등이 있었음. 농민들은 · 식량자급률 법제화 ·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금 증액 · 학교급식법 개정 · 쌀 수급 및 가격안정책 수립 등을 촉구하다. 농민대회에는 국제농민단체 비아캄페시아 알베르토 고메리 멕시코 대표 등 아시아 농업연합 소속 농민20여명이 함께 했음.

11

인천숭의체육관 주차장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한청, 전빈련, 양심수후원회 등 11개 단체 공동으로 '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민족대회'를 열다. 3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경원 범남본 사무처장 사회로 문예공연에이어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대회사,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미군철수촉구 정치연설, 김흥현 전빈련 의장의 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성명서 낭독, 송효원 한총련 의장의 범청학련 남북해외본부 결의문을 낭독하다.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미군강점 60년 청산과 9.11국민대회 인천지역 준비위 공동주최로 5000여명이 각종 표현물을 갖고 숭의체육관에서 인천자유공원까지 반미반전 평화행진을 하다. 보수우익단체들의 공원입구등에서 행진단을 가로 막았으나 이를 뚫고 자유공원 비둘기광장에 들어가 '미군강점 60년 청산 주한미군 철수 국민대회'를 열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 이정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결의발언. 맥아더 총사령관 명의로 1945년 9월 7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발표된 '조선인민에 대한 점령군 포고령 1호'를 찢는 상징의식을 가졌음.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맥아더 동상 주변으로 '인간띠잇기'를 하려했으나 경찰의 폭력 방해로 많은 참가자들이 크게 다치다.

정순택 선생님 산소호흡기 부착하다. 가스 제거하기 위해 항문에 튜브. 임선영, 임미영, 민경우, 김혜정, 유필수, 박상남 문병. 안학섭, 김영식 선생님 매일같이 오심.

12

정순택선생님 다시 하복부 단층촬영(C.T)하다. 오후 담당의사 만나 결과 알아보다. 배가 불러오는 원인이 된 복수를 빼기로 하다. 오후 늦게 수술실에 내려가 배에 호스를 넣어 복수를 빼다. 선생님 답답함에서 풀려나셨으나 암에 대한 방침은 없다. 이정태, 김도균, 김희선 회원 문병.

용산 국방부앞에서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성대책위 주최로 '국방부의 강제토지수용 규탄, 미군기지 확장계획철회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공여 면적 349만평 가운데 120만평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소에 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음.

비 국방부가 대량살상무기 사용 우려가 있는 나라나 '테러'집단에 대해 핵무기로 예방적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핵전략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다. 초안은 2002년 부시의 '예방적 선제공격' 전략에 따른 것으로 지난 3.15일 리처드 마이어드 합참의장실에서 마련해 '합동 핵 독트린(Doctrin for Joint Nuclear Operation)으로 명명했다고함. 부시행정부는 2002년 1월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이북과 이란 등을우선 공격대상으로 선포한 바 있음.

후원회 소식167호 발송작업하다.

13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주최로 '암투병중인 정순택, 강담 노인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기자회견'을 열다. 2차 송환 희망자와 송환추진위 소속 회원, 사회단체 성원 등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노진민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헌 상임공동대표의 여는말,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의 송환촉구발언, 문장식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권오헌 임기란 대표와 노진민 집행위원장 대한적십자사를 방문, 남북교류운영위원장을 만나 정순택 선생님의 시한부 암투병 사실을 알리고 2차 송환을 촉구하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북측과 협의하여 북쪽 아드님이 문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하다.

정순택 선생님 복수를 빼어 부풀었던 배가 많이 가라앉고 조금 편안해 하셨지만 진통제를 계속 주사하지 않으면 안되게 통증이 심하심. 선생님 스스로 심상치 않은 증세로 의심하고 있는 듯 했음.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 김호현 운영위원 문병.

후원회 소식 국내1187, 해외 13통 등 회원들과 양심수들에 발송하다.

Corea반도 비핵화문제를 다룰 2단계 4차 6자회담이 휴회한 지 37일만에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팡페이위엔에서 다시 열리다. 이번 회담의 중요쟁점은 이북의 평화적 핵 이용권과 경수로 문제라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대표단이 직항로 평양에 도착, 4일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가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최영건 건설건제공업성 부상의 마중을 받고 숙소인 고려호텔에 도착, 권호웅 북측단장과 만나 덕담을 나누었으며 이 날 밤 인민문화궁전에서 박봉주내각총리가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하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실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Corea반도 분단 최대 책임자로 미국(53%), 구쏘련(13.7%)순이었다고 하다. 또한 주변 강대국 중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나라로는 미국(35.3%), 일본(35.2%)으로 두 나라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이북의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해서는 허용이 49.8%, 안된다가 48.6%로 비슷했으며 미국이 대북선제공격시 우리정부가 어느 편에 서야하는가에 대해서 미국편이 41%, 이북편이 40.9%였다고 하다.

14

권오헌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상임공동대표는 MBC라디오 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과 정순택 선생님 암투병과 관련 생방송 인터뷰하다. 또한 이 날 오후 기독교 방송 '이슈와 사람'프로그램에서도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정순택 선생님 등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2차 송환 희망자들 상황을말하다.

양심수후원회 제17차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들 사정에 따라 이메일 문건으로 대신하다. 안건으로는 정순택 선생님 암투병과 2차 송환문제, 2005년 회원 역사기행문제로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다. 강덕환, 김희선 회원 문병

경찰청 앞에서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인천지역준비위 등은 '9.11 미군강점청산대회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을 인천자유공원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탄압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다.

제16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 권호웅 단장은 '북남관계를 결박하고 있는 과거의 낡은 틀, 낡은 명분, 낡은 형식을 버리고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 존중하며 이와 배치되는 법과 제도를 철폐해야한다' 고 했으며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 '투자장벽 제거' 등을 의제로 냈으며, 남측은 '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군포로 등 생사, 주소확인사업, 개성공단 2단계 개발 확대와 육로 통행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고 공동취재단이 보도하다.

15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와 한총련 공동으로 '한총련 8년차 정치수배자 김지영 학생 공소시효 만료에 즈음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을 열다. 소속단체성원과 학생 등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김지하 한총련 조통위원장 사회로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여는말, 손준혁 6기 한총련 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김승교 변호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정치수배해제 촉구발언이 있었고 서총련 김노진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585회 목요집회를 열다. 조순덕 상임의장의 여는말, 임기란, 서경순 전 상임의장의 국가보안법 폐지, 탄압기구폐지 등 결의발언, 이천재 서울연합의장의 맥아더 동상철거 당위성 발언 등이 있었고 8년 청치수배 공소시효만료를 맞은 김지영 학생 인사말 등이 있었음.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116차 유엔 총회 고위급 본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세계 여러 분야에 남아있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한다' 고 했으며, 일부에서 다시 나타나고있는 강대국 중심주의 경쟁을 경계해야한다고 하다.

16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장관급회담을 마치면서 남북은 '한(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6.15공동선언시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는 등 6개항 13개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다. (6개항 중 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❶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남북관계에서 일체 체면주의를 버리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낡은 관념과 관행을 없애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협의하고 실천해나가기로 하였다. ❷남과 북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6.15시대에 맞게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도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각기 군사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❸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통일적 균형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1)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장애를 제거하고 동족사이의 투자 및 유무상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남과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임진강 수해방지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들을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 11차 회의와 관련 실무접촉들을 통하여 협의해결 나가기로 하였다. ❹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남과 북은 11월 초에 제 12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올해안으로 2차례의 화상상봉을 하기로 하였다. (2)남과 북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확인문제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해 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❺남과 북은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사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적극 밀어주기로 하였다. ❻남과 북은 제 17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2005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7

정순택 선생님 맥박 123, 혈당 183, 몸무게 66.5kg. 통증점점 더하시고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떨어지심. 17~18일 간병아주머니 추석명절로 쉬심. 조카며느님과 이승희 회원 간병하심.

18

민족명절 추석입니다. 모두 한가위 잘지내시고 가정마다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같은 민족최대명절에도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들 건강하시고 무죄 석방되시기 빕니다.

정순택 선생님 18일 밤부터 19일 낮까지 이정태 운영위원 간병하심. 이득형, 양계숙 문병.

19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사법 살인당한 한국사회당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최백근 선생님 묘소 참배하다. 망우리 묘역에 있는 고인 묘소 참배는 고인과 사회당 활동을 함께 했고 재판을 받은 바 있는 옛 동지들이 함께 했음. 전창일, 박정숙, 김선분, 진병호, 황금수, 김재봉, 김영옥, 서상호, 권오헌 등.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Corea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을 정리하면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하다.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며,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 대한민국은 1992년도 조선반도 비핵화에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는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은 준수 등) 조선은 핵에너지의 이용 권리를 주장-다른 당사국들은 이를 존중키로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키로 하다. ❷조선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 평화적 공존,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약속, 조선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 정상화 조치 약속 ❸참가국들은 조선에 대해 에너지 지원 용의 표명, 남은 북에 대해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지원 재확인 ❹6자는 동북아 영구 평화체제 협상키로 ❺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 단계적 방식 합의이행 ❻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 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열기로 하다.

20

정순택 선생님께 처음으로 암 진단 사실과 현재 진행 상황 말씀드리다. 선생님께서는 담담한 표정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생명에 대한 애착은 없다. 신병정리가 필요하다. 반미시위를 원래 목표대로 못하고 떠나게 되어 안타깝다. 원래 목표는 6.15까지 70,000km, 8.15까지 80,000km, 10.10까지 100,000km를 이루려 했으나 도중에 그만 두게 되어 아쉽다. 총체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갔다는 자긍심을 갖는다. 통일을 촉진시키지 못한게 부끄럽다. 그리고 아드님과 우리민족 앞에 남기고 싶다며 ' 우리민

족의 최후의 적은 미국이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항하지 못한다면 우리민족의 존립은 위험에 처한다. 다행히 6자회담이 합의되어 강하할 일이다. 우리민족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신명을 다해 미국과 맞서야한다. 강하다, 무섭다, 큰 나라에 대한 주저함, 숭미 공미하면 주체의식을 잡아먹는 병균이 될 것이다. 우리민족은 개명하면서부터 미국과 원수관계에 있었고 미국의 세계화 정책은 미국놈들이 아메리카 버지니아주에 상륙이래 이제까지 한번도 변하지 않고 있다. 민족에 대해 조금도 굴복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강도적인 것이다. 인간의 정책이 아니라 강도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심. 독일 신옥자 선생님으로부터 정선생님의 건강 염려하는 전화있었음. 김호현, 권오헌 다녀오다.

21----------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발기인이며 중앙위원이었고 범민련 고문이신 김병권 선생님께서 2003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해 오시다가 이날 오후2시 30분 통일조국 그 날을 보시지 못한채 대부도 평화의집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 시신은 서울삼성강남병원 장례예식장에 안치하고 빈소는 1호실로 했으나 22일에는 16호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타계소식에 남민전 동지들과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단체 대표들은 영안실에서 장례문제 등 협의하다. 장례명칭은 '통일애국지사 고 김병권 선생 민족통일장'으로 하고 장례위원장은 안재구 남민전 동지, 이규재 범남본 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로 하고 3일장으로 하며 장례형식(배상 또는 화장)은 내일 아드님이 해외(카이로)에서 돌아오는 대로 결정하기로 하고 호상은 전창일 범민련 고문으로 정하다. 집행위원장은 이경원, 한충목, 노세옥으로 하고 조사, 추도사, 조시 등 영결식 준비 등을 결정하다.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열리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사회로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김병삼 신부의 인사말에 이어 공군전투기와 민간 항공기 조종사 경력을 갖고 있는 김성전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은 경험과 지식에 바탕하여 858기 사건 수사기록에 의한 폭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행기가 그렇게 쉽게 폭발하지 않는다' 했으며 폭발물전문가 신동수 동아대교수도 발표된 폭약은 수류탄 3개 정도 위력으로 항공기가 폭발할 수 없다고 구체적 자료를 갖고 설명하다.

22----------

586회 민가협 목요집회. 고 김병권 선생님 추모묵념으로 시작하여 조순덕 상임의장의 여는말, 권오헌 공동의장의 암투병 중인 정순택 선생님을 북녘 가족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는 말에 이어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촉구 발언이 있었음.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군사주권을 위해 전시작전권은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 66.7%였다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촉구하다.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70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출범식을 연고 · 노동시장의 양극화해소 · 단계적 무상의료·무상교육실현 ·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실현 ·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개선 · 공공 및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 · 보육 공공성실현 · 주거공공성실현 등 7대 정책의제를 발표하였다.

2003년 중앙대 총학생회장으로 서남총련 의장활동을 했던 박지현씨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스트라이커 투쟁 배후조종 혐의로 보안수사대 요원 10여명에 의해 연행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전향장기수 북송 가능성을 묻는 여야의원들의 (신기남, 박성범) 질의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인도주의적', '인권',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군포로 납북자 문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하다.

23----------

중앙일보 창간 40주년을 맞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4%가 주한미군의 단계적 또는 전면 철수에 동의했다고함. 이 수치는 2003년 39%, 2004년 48%에서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며.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16%.

통일원로 김병권 선생영결식이 오전 11시 서울 강남삼성병원 영결식장에서 '통일애국지사 고 김병권 선생 민족통일장으로 엄숙히 열렸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동지'였던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의 고 김병권선생 약력 소개, 남민전 동지들을 대표해 안재구선생의 조사에 이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가 보내온 조사 대독, 박석률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의 범민련 공동사무국 조사 대독에 이어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과 이종린 명예의장의 추도사, 남민전 '동지'였던 이학영 전국 YMCA 사무총장의 추도시, 안산 통일마당 노래패 '휘파람'의 조가가 있었고 유족대표로 고인의 아들 정호씨가 나와 "아버님이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뜻을 함께 하고 지키신 분들이 오신 가운데 아버님을 보내게 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내용의 인사말을 전했다. 전창일 선생의 호상 인사후 분향 및 헌화를 하고 운구가 벽제화장터로 옮겨 고인의 유골은 파주시 청아공원 납골당에 봉안되다.

24----------

정순택 선생님 부정맥 현상심하고 기력 점점 떨어지심- 이정태 회원 등 토요일 우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간병하다.

대림동 한림대병원에 입원해 투병중이신 서순정 선생님 문병다녀오다. 그러나 중환자실에 계셔 면회를 하지 못하다. 선생님은 간경색 등으로 지난 9월 7일 입원하시어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아오고 계셨음. 빠른 쾌유를 빕니다.(이정태, 권오헌 다녀왔음)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서울역 광장에서 1000여명이 모인가운데 '9.24 이라크 전쟁종식을 위한 3대 파병국 공동행동' 집회를 열고 명동을 거쳐 광화문까지 반전평화 행진을 벌이다.

서울 여의도 공원 야외무대에서 한국문학평화포럼 등 소속 문학예술인들은 일제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일본 우토로마을을 일본 당국에 의한 강제 철거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한 '우토로 문화축전'을 열다.

25----------

양심수후원회 산행의 날. 모두 28명이 함께하여 청계산 입구 원터마을을 떠나 원터골 쉼터3거리, 매바위 못미쳐서 갖추어온 점심식사를 하고 일부는 원터골 쉼터로 일부는 매봉(정상)을 오르기 위해 떠나다. 매바위, 돌문바위까지 올라 맑은 가을날씨 가시거리가 먼 주변산천을 한눈

에 내려다 보다. 다시 3시까지 윈터골 쉼터에 모여 시간 맞추어 오후에 산에 오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의 간연을 듣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회원으로 평양에서 열린 민족작가대회에 다녀온 내용과 친일인명사전과 친일관련자 명단 발표에 따른 내용으로 1시간 정도 강연을 하다. 마치고 윈터골 입구 음식점에서 뒤풀이를 하며 친일명단 선정내용 등 설명을 듣다. 이종린, 변숙현, 김수룡, 김교영, 송세용, 김장현, 류종인, 유인호, 노중선, 정동익, 한찬욱, 김재선, 신현익, 김호현, 서미라, 김건우, 소수영, 임미영, 김혜순, 정향숙, 김재현, 이창희, 김혜정, 이봉주, 정인태, 안병길, 임헌영, 고경숙, 권오헌 함께

26

정순택 선생님 기운이 점점 약해 지시고 있음. 한림대 병원 서순정 선생님 일반병실로 옮기셨음. 이미 온몸이 간경색으로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음(이선근 선생님과 권오헌 대표 다녀옴)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청 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7월 31일 현재 보안수사대 인원은 2478명이며 이들이 올해 7월말까지 검거한 이른바 '대공사범'은 11명으로 보안수사 인력 225명당 1명이라고 밝힘. 그 11명도 불구속처리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2500여명 보안수사대는 할일 없이 빈둥대는 꼴이라고 지적하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광복 60돌 기념 평양역사유적 답사단 300명이 오전 평양으로 출발했다. 답사단은 오는 10월 17일까지 총 20여차례에 걸쳐 평양으로 가서 만경대생가, 주체사상탑, 개선문, 옥류관 등을방문하고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27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200여 재향군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설립 추진위원회'는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다. 상임대표에는 예비역 준장인 표명렬 준비위원장과 김상찬민족문제연구소 명예회장을 뽑았음.

국방부(장관 윤광웅)는 27일, 2006년 국방예산안 총 22조 8,63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예산보다 9.8% 증가한 것으로 200조(05년 약 195조) 안팎으로 예상되는 정부 총예산의 1/10에 해당한다. 전체 예산안중 경상운영비는 2005년 예산대비 8.3% 증가된 14조 8,961억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된 전력투자비 7조 9,671억원의 2배에 달하는액수이다.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성원들 제50차 평화군축집회를 열고 '작전권 환수 없는 국방개혁안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역행 국방예산삭감'을 촉구했다.

28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가 29-30일 양일간 개성에서 개최된다. 지난 8월1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이후 처음 열리는 남북간 협의회로 주요 임무는 ▲적격선박 확보 및 항로망 구축 ▲국적선사간 컨소시엄 구성 추진 ▲선·화주에 대한 서비스 정보 제공 ▲ 각종제도개선 및 민간교류지원 등을 통해 남북해상수송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 등이다.

29

평택소재 캠프 험프리스 사령관 마이크 제이 텔리엔토 주니어(Michael Taliento Jr.) 대령은 '인터넷신문 오산.평택미군기지 투어단'에게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기지확장 청사진을 설명하면서 50년 홍수에도 끄덕없도록 3.5m 제방을 쌓고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에는 2.5m 두께의 흙을덮어 다진 뒤 그 위에 건물을 세울것이고 기지는 100년 이상 가도록 튼튼하게 지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평택 장기 주둔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는 기지가 확장되면 "캠프 험프리 규모는 기존 1,112에이커(약 136만평)에서 3,500에이커(약 430만평)으로, 수용인원도 현재 9천명에서 주한미군 전투병력 14,491명을 포함해 총 44,500명 수준으로늘어난다"고 밝혔다.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 권오헌, 임기란, 권낙기 상임공동대표와 노진민 집행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를 방문, 한완상 총재와 면담, 정순택 선생님의 병세 악화를 말하며 빠른 시일안 송환을 촉구하다. 또한 송환이 절차상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면 오늘이라도 북측과 협의, 아드님의 문병을 오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다. 한완상 총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다. 이어 통일부를 방문사회문화교류국 관계자를 만나 같은 내용으로 촉구하다. 통일부에서도 '상호주의'가 아닌 '조건없는송환방침'을 협의중이라고밝히다.

정순택 선생님 이제까지와 병환증세와 다르게, 권오헌 회장의 문병에 반갑게 맞아주시고 큰 목소리로 말씀도 하심. 적십자사와 통일부 다녀온 말씀 드렸음. 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떼어 통일원에전함.

587회 민가협 목요집회. 조순덕 상임의장의 여는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조현경학생의 박지현(중앙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학생 구속의 부당성 호소하는 말, 북한방문관련해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중인 이성한씨의 형, 이주환씨 탄원서를 이영 총무가 읽었고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국가보안법을 철폐, 경찰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수사기구 폐지촉구발언이 있었음

30

정순택 선생님 새벽 5시경 호흡곤란 등 혼수상태. 의사는 패혈증과 폐렴증상까지 있어 위독상태라고 하다. 통일부에 위독상태 알리다. 하루종일 산소호흡기와 항생제 주사 등 응급조치를 받으셨으나 통일조국 평생염원 보시지 못한 채 오후 6시 45분 끝내 운명하시다. 의사들 사망확인하고 시신은 냉동실에 안치시킴. 한편 이날 낮 정부당국은 적십자사 한완상총재 이름으로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정선생님이 위독하니 임종을 위한재북가족의 남쪽지역방문을 요청하다.

양심수후원회, 통일광장, 송환추진위, 범민련, 전국연합 일꾼들 선생님 장례문제 논의하다. 장례형식 명칭을 비롯하여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3일장으로 하고 화장하여 보광사 통일애국열사 영면지에 유골함을 모시기로하다.

양심수 62명에게 영치금 발송하다. 또한, 민족21 등 월간지도 보냄.